

# 신-합리주의 이후 이탈리아 현대건축과 미니멀리즘의 비교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Italia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the Minimalism Since Neo-Rationalism.

임종엽 / Lim, Jong-Yup

## Abstract

We fou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works of Italian Architects especially in 1960s Neo Rationalism and also in the products of inclination of contemporary Minimalism. Based on the moderate applica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language and on typological prototype, the Italian Architects pursued inherent logic by which the works came to the composition and association rule that show an extremely moderate expression of a spirit indispensable to Architecture. And they turned down the logic of ergonomics, but they searched for the simple and prototypical form that was the architectural language, strongly restrictive, common, and objective, all through the abstraction of Architectural elements in their memories. The overcome from the forms and the methodology of thinking contain common types in Contemporary Minimalism. But, Contemporary Minimalism rejects fundamentally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typological prototype from the past.

키워드 : 합리주의, 미니멀리즘, 기호, 은유, 관찰, 대상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소한의 언어를 주도하였던 미스(Mies van der Rohe)의 영향력이 무너지던 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과 레이트 모던의 공격성은 역사주의와 해체라는 아방 가르디즘을 표면적인 논리로 내세우며 근대 이후 이어져오던 모더니즘의 과정을 더욱 혼돈스럽게 만들어왔다. 이것은 건축의 원리를 건축 외적인 요소로부터 이끌어 설명하고 주입시켜 건축공간의 문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건축의 방법은 건설과정(construction)이라는 본질적 순수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communitiy)로서의 시간성을 동반하여야만 한다. 이는 르네상스 이후 표면화 되어오던 합리주의 건축개념의 기초이기도 하면서 건축공간이라는 물리적인 틀 속에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도하다. 이것은 건축이 역사 속에서 문화적 실체로 인식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미 전후에 시작되었던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가 현대에 와서 재 사용되는 포스트모던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형식적인 원리보다 그 내재적인 원칙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건축공간에서 절제된 표현으로 이해되는 미니멀리즘의 원리가 현대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가들에게서

보이는 접근방법과 유사 혹은 중첩되면서도 상이한 부분을 파악하여 혼돈의 부분을 규정해 보코자 함이며, 단순히 꾸밈이나 기호적으로써의 유희, 혹은 즉흥적인 미래적 기대감의 허상적 요소가 아닌 본질적 요소로 이해되기 위함이다. 이것은 현대 도시공간에서 건축의 요소가 도구로써의 사용이 아닌 본성에 내재된 기초로써의 인식을 위함이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미니멀리즘이란 용어가 시작된 50년대 전위예술로부터 시작하나 구체적인 시각은 그 이전, 근대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건축공간의 합리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건축에서 절제의 문제를 감성적 혹은 서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분을 제거하고 건축에서 방법론의 문제를 이성적이고 원칙적인 시각을 통해 구축하려는 몇몇 현대 이탈리아 건축가의 논리에 따라 이해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탈리아 합리주의의 원칙 속에 담겨져 있는 절제된 논리의 부분을 통해 건축외적인 시각의 인용으로 인해 오용되는 현대건축의 과오를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통찰 자가성으로 설명되는 형식주의나 역사주의로부터 건축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대 이탈리아의 합리주의를 선언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물론 건축의 가치를 이성과 원칙의 문제로만 해석할 수는 없음을 전제로 하지만 포스트, 레이트, 해체주의 등을 겪은 현대 건축이 이제는 단순성, 절제성 그리고 공간의 침묵마저 기호쯤적 꾸

정희원,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조교수

밈의 도구적 형식으로 사용됨에 반대적 의견을 기반으로 한다. 건축에서 대상이 갖는 순수성의 문제는 현대 미니멀리즘에서 거론되는 관찰자 시점의 인식문제와 유사하면서도 그 차이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건축에서 갖는 건축형식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에서 건축구성원리의 '필연의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미니멀리즘 예술의 의미와 특성

### 2.1 배경과 유형

미니멀리즘은 2차 대전 전후예술의 혼돈과 다양성 속에서 모든 표현성의 요소들을 제거했던 시기이다. 즉 비-예술과의 아슬아슬한 경계 선상에서 미학적 과정 또는 비판적 표현으로는 미학적 찌꺼기를 자체만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미니멀리즘은 비-대상(Non Object)의 카시미르 말레비치(Kasimir Malevich)나 거의부(Beinach nicht)를 내세운 'Less is More'의 미스와 같은 이전의 선각자들이 시작한 모더니즘 실험을 아직도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의 성격이기보다는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다양한 전위적 실험이후 결국은 본질적 문제에 다시 의문을 갖고 삶과 실존의 해석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두고 미니멀리즘은 본질주의, 환원주의로 정의된다. 케네스 베이커(Kenneth Baker)의 글을 인용하면 '미국의 미니멀리즘은 1950년대의 추상 표현주의 회화의 자기축복과 낭만주의적 중만함에 대항하여 일어난 고전풍의 반응인 것처럼 보인다.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양식상의 극단성은 18세기말의 유럽미술에까지 소급되어 펼쳐지는 뜨거운 감성과 차가운 감성사이의 변증법이 지그재그 식으로 도식된 것을 볼 수도 있다. 이것은 하드엣지(Hard edge)와 소프트엣지(Soft edge)를 연상시키며 건축에서 포스트모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반-문화'(counterculture)를 내세운 1960년대는 자만심의 핵심이 된 위선과 위계질서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고 텔레비전에서 집단적인 자아를 보려는 1세대들을 일소시킨 대중적 나르시즘의 유행병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up>2)</sup> 또한 이때는 전쟁의 상처가 회복되어 유순한 복종을 제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 새로운 세대가 발흥하는 시기로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순수한 사실에서 새 종류의 자생적 풍부함이 도래한다. 사회가 점차 변형하게되면 생활 방식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 자유가 제공되는 듯하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고 공동체 사회의 정의를 위한 요구를 낳는 동시에 합법성에 관한 포괄적인 의심이 개별성과 주관성을 구별하는 어려움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미니멀리즘은 팝아트와 대립적인 입장을 취한다.<sup>3)</sup> 팝아트가 진동에 의해 확립된 모델의 즉각적이고 표면

적인 모방이라는 측면에서 포스트모던건축의 총체적 유사성이 보여 주는 현실과 예술의 모조품과 상통하듯, 미니멀 아트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의 텍스트론에서 차용한 '대상의 원점(Zero point)'을<sup>4)</sup> 기반으로 하여 모던건축이 추구하던 본질의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다.

### 2.2 형태와 지각의 방법 (관찰과 대상)

가공되지 않은 재료, 레디 메이드 혹은 발견된 오브제와 구별되지 않는, 조금의 장식적 묘사마저도 배제되고, 비-예술적인 것과 최소한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 일상적 사물로서의 예술, 등으로 설명되는 미니멀리즘의 의미는 암시나 환영을 피하고, 순수한 형태의 지각을 넘어서는 모든 감각주의와 주관주의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지성이다. 즉 이성의 페러다임에 기인하는 이성에 직접 이야기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sup>5)</sup> 이것은 시대적 기운이었던 '반문화'라는 표현 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고결한 경향을 갖고있어 고전적 원형성을 재고하기도 한다.<sup>6)</sup> 현대예술에서 미니멀은 본질적 형태의 경험으로서 관찰자에 의해 경험되는 신체적 지각을 가장 순수한 가능성 안에서 달성하고자 한다. 미니멀리즘은 지각현상학을 이야기한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에 의하면 발전된 현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사고와 추상을 지향한 급세기의 전환기, 즉 천년왕국의 도래를 믿는 밀레니움(Millennarianist)적 종말의 감정이 일반화된 혼돈 속에서 지적 경향을 종합하는 새로운 아방가르드로 해석되기도 한다. 폴 세잔<sup>7)</sup>은 사실주의를 해체하는 대신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불확실성을 포함 시킴으로 관찰과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 즉 관찰자의 다양한 관점과 보는 행위에 개입되는 의심의 가능성이 재현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8)</sup> 리타르(Lyotar)는 모던예술에 재현 불가능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의하였고 이것이 곧 위기임도 밝혀두었다. 상상의 것, 예를 들어 무한하게 거대한 것,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우라(Aura), 곧 숭고미이다.<sup>9)</sup> 가스통 바슐라르(G. Bachelard)의 '공간의 시학'에 들어있는 상상력의 작용, 지적 교감, 독자적식의 체험, 존재의 전환, 현대 주제인식의 강조, 원형, 경험적 삶의 집적체, 혼의 울림 등을 통해 '인간적인 일체'를 이야기하며 미적체험과 인간존재론의 의미를 밝힌다. 슈츠(C.N. Schulz)는 인간과 장소의 혼, 공간 속에서 운동과 배경, 삶과 장소의 통합, 경험된 실존적 의미, 예술과 종교의 상징적 공통의 뿌리, 중심의 관념을 들어 위상의 문제를 거리, 각도, 면적에 관계하지 않고 근접, 분리, 연속, 영속, 내,외부 폐쇄의 관계에 바탕을 두는 것이 보다

4) 이정옥, 현대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1997, 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p.151

5) Vittorio E. Savi & J.M. Montener, Less is More, 1996, Ingoprint S. A. Barcelona, p.12

6) 사물성의 예술로써 미니멀리즘은 기하학을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전적이다.

7) M. Merleau-ponty,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1983, 서광사 pp.185-214

8) Richard Appignanesi, op. cit, pp.22-23

1) Richard Appignanesi, Postmodernism, 1995, p.43

2) Kenneth Baker, 미니멀리즘, 김수기 역, 1993, p.12

3) Ignasio de sola Morales Rubo, The Presence of Mies, 1994 Delft Mertins and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Y. Mies van der Rohe and Minimalism, p.151

위상적 이라고 했다. 실재를 주자(en soi)와 대자(pour soi)로 나누는 폴 사르트르, '생활세계(Lebenswelt)'를 말하는 헝겔을 통해 지각체 현을 인식에 둬므로 인간과 세계, 의식과 대상을 공간 속에 이입시키게 된다. 특히 메를로-龐티는 '눈과 마음'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에 '보편적 존재'라는 독창적 표현을 통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존재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신체의 양면성이요, 재귀적인 것이다. 즉 공간 속에서 나의 존재는 보는 것인 동시에 보여지는 것이고, 연기와 관객이 수시로 역할을 바꾸는 즉흥적인 무대로 이것은 미니멀리즘의 특징이자 합리주의 건축가들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필연적 구축물로 설명 될 수 있다.

### 3. 건축공간과 최소한의 요소추구

#### 3.1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의 관계

모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modo "바로 지금"에서 나왔다.<sup>9)</sup> 모던의 의미는 우리의 개념보다 훨씬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져왔다. 1127년경 수도원장 슈제(Abbot Suger, 1081-1151)<sup>10)</sup>는 파리의 생 드니(St. Denis) 성당의 바실리카를 재건축하기 시작했다. 그의 건축 개념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한 것, 즉 전형적인 그리스식도, 로마식도, 로마네스크 양식도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sup>11)</sup> 슈제는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라틴어에 의존하여 최선작품(opus modernum)이라고 했다. 이후 브루넬레스키(F. Brunelleschi)는 자연과 이성이 모두 증명한대로 고전적인 것만이 진실된 의미에서 영원히 모던한 양식이라고 했다. 인간은 현상들 사이에서 유사성과 관계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고전으로부터 이어져온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를 통하여 추상과 단순화를 지향하는 경향은 근세기 초기의 예술이자, 건축의 아방가르드 정표 중 하나였다. 추상과 기하학을 통한 미스의 작업에서 순수한 재료성으로 구성적 요소의 중력과 무게, 그리고 역학적 행위의 긴장과 재료의 내적인 힘을 표현하고 있다. 한네스 마이어(Hannes Meyer)와 루트비히 힐베르자이머(Ludwig Hilberseimer)와 같은 독일의 신 객관성(Sachlichkeit)운동의 건축가들 역시 극단적인 단순화와 반복을 통해 형태적인 단순성을 제안하였다.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는 현대예술작품이 하나의 감각영어리로 지각과 감동의 혼합체라고 이야기하며 그와 같은 감동은 '우리가 참조점으로 작용하는 다른 대상이나 이미지 속으로 들어 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재료와 그 내구성은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각, 즉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

고 예술작품에 직면한 개별적 부분에 대한 단순한 반응으로 간주 될 수도 없는 감동 모두를 생산하거나 지지케 한다.<sup>12)</sup> 모든 형태적 과도함(excesses)에서 탈피하려는 순수화의 추구는 새로운 건축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가장 강렬한 도상학적인 시도가 되었다.<sup>13)</sup> 순수화의 특징은 새로운 '회화성'을 가지게 되고 '본능적인 욕구'에서 과생되며 다른 모든 상징적 유추 또한 순수화를 추구하는 가장 단순한 절대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모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미니멀리즘은 혁신 속에서도 고전주의의 통일성, 단순성, 반복되는 구조 등을 현대성의 특성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3.2 근대건축에서 미니멀리즘

현대 미니멀리즘 예술의 명칭이 195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그 명칭이 불리워지기 시작했으나 건축의 분야에서는 이미 1920년대를 전후해 모던건축의 기초로 건축요소의 미니멀한 개념이 시작되었고 미스의 'Less is More'는 이미 그 절정에 있었다. 이것은 미니멀리즘의 움직임이 회화나 조각, 음악, 문학에서보다 건축에서 먼저 적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전문적인 유행어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니멀리즘을 기술적 미니멀과 지역적 미니멀로 나누게 된다. 건축의 의학적 요소와 재료, 그리고 디테일로만이 아닌 도시적 공동체의 삶과 공간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것엔 물론 지역적 성격에 의한 차이가 있다. 다양한 현실의 통찰을 기반으로 건축의 문제는 건축자재로 주제가 되어야 한다. 건물형태에 담겨 있는 의미와 가치를 건축가의 의도이기보다는 관찰자, 즉 공간사용자의 상황과 관습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건축주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 3.3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에서 단순화 문제

고전과 역사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이탈리아인들은 건축 과정에서 건축이외의 문제를 제기하고 삶 속에서 구축된 환경의 틀이 삶을 담아내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하여, 과정으로써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는 부분'과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게 된다. 건축 문화가 진보가 아닌 진화의 문제로 보게될 때 도시의 구조로부터 이루어지는 건설과정과 구축형식의 문제는 최소한의 물리적 틀의 성격으로 기존적 뼈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이루어진 틀 속에서 풍부함으로 임혀지는 다양한 생활은 수용되고, 자유롭게 누적과 도태를 이루면서 문화의 근거로 자리잡게 된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기보다는 문화 사회적으로 결정된 가능성들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고 주어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어느 개인도 그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서 알게된 의미들의 체계 속에서 태어난다. 의미는 사회적 현상이고 개인의 상징주의가 실제 단계너머로 발전하지는 못한다. 인간정신 능력의 성장은 최초의 산만한 지각으로부터 부분과

9) Richard Appignanesi, op. cit. p.7

10) 슈제는 수도원의 건축주 겸, 수도원장으로 루이 6세와 루이 7세의 고문이기도 했다. (이노우에 미츠오, '건축미론' 1994, 국제 pp.50-59 참조) 고딕양식이라고 알려지게 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건축양식의 막을 여는데 도움을 주었다.

11) 성당 (빛과 색이 있는 건축물), Alain Erlande Brandenburg, 김택 역, 시공사, p.54

12) Ignasi de Sola Morales, op. cit. p.154

13) Heinrich Klotz, 현대건축론, 기문당, 1991 p.21

진체 내에서의 상호 관계들이 이해되는 명료한 경험으로 이동한다. 건축이 만들어내는 틀의 문제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진화된다. 첫째, 개인이 지니는 내성과 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기억의 집적이 수용될 수 있는 최소의 배경으로써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간의 틀 자체가 먼저 많은 이야기를 주장하려는 것은 개인의 본성이 다양한 지각을 이루는데 제약과 강제적 주입을 말한다. 최소한의 역할은 최대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인간 본성의 경제원칙이자 창조적 자아를 확인하고 실체로써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이기도하다. 둘째는 이러한 최소한의 틀이 역사는 공통된 인식의 기반에서 누적의, 혹은 고전의 모습으로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 내게된다. 이를 문화적, 사회적으로 결정된 가능성이라고 표현한다. 이 상징적인 요소들은 최소한의 변형을 이루며 우리 삶에서 명료한 경험의 기초적 구조를 이루게된다. 고전으로부터의 교훈은 건축에서 장식(Decoration)과 꾸밈(Ornament)의 문제를 구별하게 하고 건축은 건축만으로도 사회 속에서 문화의 근거이며 기타 예술과의 관계성에서 중심이자 기초적 틀로서 존재하게된다. 엄격한 아돌프 루스(Adolf Loos)는 현대화된 건축언어를 추출하기 위해서 단순성의 가치와 의미에 집중했고, 미스는 리얼리티가 건축작품을 위한 재료이며 건축물을 건물(bauen)으로써만 이해하기를 요구하고 건물의 재료성에 의해 확립된 지각조건이 정신적 의미의 기원인 것이다. 건축가는 '재생산해야 할 법칙과 관습에 순응하기보다 순수재료와 본질적 고전의 형태를 모방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상과 지각간의 관계를 건축의 본질적 작업에 대면시킨다.

## 4. 합리주의 건축의 의미와 특성

### 4.1 근대 이탈리아 합리주의의 배경과 유형

정신만으로는 미를 지각할 수 없다. 미와 신성함의 시각을 획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름답고 신성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lotinus-

이탈리아의 근대건축은 리버티14), 미래주의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고대로마, 르네상스로부터 이어지는 고전적 질서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모던건축을 전개시켜나간다. 다른 유럽과는 구별되게 합리주의라는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15) 당시의 합리주의 건축운동의 움직임은 그룹포 세떼(Gruppo7), 노베첸토(Novecento), M.I.A.R(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운동)등을 통해 밀라노를 중심으로 국제적 조류에 동참하는 움직임과 로마를 중심으로 고전건축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공존했다. 여기서는 그들이 패전 후, 자국의 부흥운동으로 모든 근대적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고전주의를 표방하였다.16) 즉 이

14)이탈리아의 아르누보(Art Nouveau)건축 운동

15)김종현, 1930년대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의 모던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105호 1997.7 pp.45-52

16)이런 움직임은 각도의 형이상학적 고전주의를 암시한 회화의 데 키리코(G.De Chirico)와 라 롱다(La Ronda)그룹의 고전주의적 문헌경향에서도 알 수 있다.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합리주의가 과학적, 경제적 합리성과 구별되는, 즉 고전과 역사를 관통하는 삶으로서의 공동체적 정신을 합리성의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근대합리주의이후 이탈리아 현대건축의 특징

근대합리주의 이후 이탈리아의 현대건축은 침체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변화되는 개념적 속도에서 흡수될 시간적인 경과의 여지가 없다. 막연한 유행적 수용에서도 이탈리아 도시는 방대한 문맥(context)을 동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개인들의 인식적 구조에서도 현대는 환원적 관습 및 연속적 시간성 속에서 매우 단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도 이탈리아 현대 건축가들은 관습과 일상을 동반한 추상적 작업에 지속적인 논리적 작업을 유지하고있다.

### 4.3 이탈리아의 작가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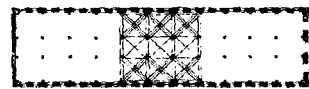
현대 미니멀리즘과 관련된 건축작품의 분석 중에 사비(Vittorio E. Savi)의 견해는 보다 포괄적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작가들은 르네상스에서 현대까지 그 시대성에서도 폭넓게 관찰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가 선정한 작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 마테오 누티 (Matteo Nuti). 도서관 말라테스티아나(Libreria Malatestiana), 15세기

마테오 누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대열에 오르는 건축가는 아니다. 여기서 사비가 현대 미니멀리즘에서 보편적인 르네상스의 건축가를 거론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합리주의가 도덕적 압박으로부터 유럽의 정신을 해방시킨 휴머니스트들의 배경이 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오르다노 콘티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작업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과 건설적인 시공적 조건들을 잘 통합하고 있으며, 모든 상징과 비례적 가치에서도 그러하다. 재료로써 빛의

문제에서도 중앙의 네이브 공간과 시선이 닿는 각 구석의



<그림 1> 마테오 누티. 도서관 말라테스티아나, 15세기.

끝까지 동일하게 확산하도록 처리하고 색채에도 그 건축요소로써의 역할을 부여한다. 공간의 가능성에서 가장 뛰어난 요소는 인본주의의 새로운 건축원칙 중 기본이 되는 유기적 분석으로부터 이끌어지고 부분적으로는 지역적, 역사적, 전통적인 관습이 개입된다. 조화에 서의 다양성과 다양성 안에서의 조화를 설명하는 알베르티(G. Alberti)의 'Varieta'<sup>17)</sup> 해석에 따르면 12개의 관통하는 보와 3개의 통로공간은 신성한 삼위일체와 12제자의 암시로 귀결된다. 즉 건축 대상의 관습적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우나 그 묘사방법에 있어 이전

17)파스칼은 선체와 개개의 상호 의존을 강조하며 조화의 폭력과 최소 공통 분모의 중립을 지적하였고, 피테는 원식물(Urplanze)을 통한 정확한 이성이 다양성의 자연 법칙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보다 추상적인 인식표현을 사용한다. 보다 극단적인 엄격함은 하나의 근본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이롭고 다양한 것을 찾으려함이다.

(2) 이그나치오 가르델라(Ignazio Gardella). 빌라 보레티(Boretti)의 재건축 및 확장. 1936. 밀라노

이 복원 건축의 작업에서 가르델라는 살았던 장소에서 고안된 장소로 변환되는 전위적 이상모토의 서구 모더니티 과정을 장소에 대한 부대 개념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형태의 재료와 색채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역사에 경계하고 있다.<sup>18)</sup> 그의 고안된 개입은 여분의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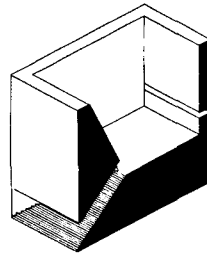
<그림 2> 이그나치오 가르델라. 빌라 보레티의 재건축 및 확장. 1936. 밀라노

필요한 부분이 빠지고 도시적 스케일에서 고려되는 배치의 축 하나로 전체건축을 이야기하려한다. 기초적인 요소들을 숙고하여 추가되는 것은 오직 절제된 화강석 벽 하나이다. 이것은 공간을 구분하는 관습적 표시만큼이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세기 주택의 전통적인 열림 방식을 암시하는 중앙 아트리움 등, 그

는 절제된 요소의사용 속에서도 관습과 연결하는 효과적인 건축의 대위법을 만들고 있다. 이는 우아함으로 혼합되며 제공되어있던 건축으로 꾸밈과 지혜의 결합이다.

(3) 알도 로시(Aldo Rossi). 꾸네오(Cuneo) 저항성 기념비.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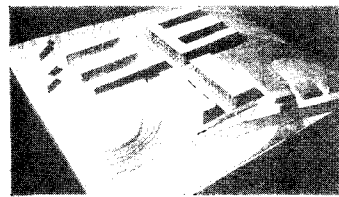
기하학적 현실성과 유형학의 설득력은 사람들이 기념비적인 상징언어라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 한면이 12미터인 육면체<sup>19)</sup> 형태를 밑에서부터 뚫고 입체의 공간내로 진입하는 높은 계단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며 계단 위 천장은 샤프트 같이 깊은 느낌이다. 계단을 오름으로 협소함과 혐오감이 커지고 위에 다다르면 황폐한 텅빈 공간과 삭막한 벽면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오직 눈 높이의 수평 개구부가 그 공간을 외부와 연결 짓는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특별한 시도를 통한 상징적 농도가 깊은 기하학에서 구체화된 장식적 상징<sup>20)</sup>의 장면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오직 직접적인 현실, 즉 생활세계로써의 인식만 인정하려는 의도를 엿보게된다.<sup>21)</sup> 꾸네오의 기념비는 화환, 포장, 장식, 간판, 기념비적 초석도 없는 즉 공공적 회상성의 유형이 없는 것이다. 계단, 샤프트, 창틀들의 자세한 물리적 표현을 피하면서 기하학적인 추상성으로 건물을 표현하였다. 로시는 일반적이고 형이상학적 성격<sup>22)</sup>의 고전적인 기본동기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화적인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신성하고 의식적인 원형적 특질을 창조하고 있다. 그는 기능의 다양성에 대해 가장 폭넓은 융통성은 극



<그림 3> 알도 로시. 꾸네오 저항성 기념비. 1962

(4) 지오르조 그라시(Giorgio Grassi). 키에티(Chieti)학생 기숙사. 1976

알도 로시의 단순성에 대해조차 그의 설화적인 서정성을 부정하며 보다 극단적인 절제를 추구하는 그라시는 건축의 원리와 습관을 망각하고 혁신만을 외치는 모든 경험주의적 이기주의자들을 정화시키고자 한다. 단순한 두 개의 열과 대칭인 두 개의 빛모양의 불룩배치를 결정하였고 전면을 채우는 높은 로지아에 의한 가로를 만들었다. 가로로 따라 서있는 로지아와 3개층의 높이의 기둥은 거대한 도



<그림 4> 지오르조 그라시. 키에티 학생 기숙사. 1976

시생활과 기념비성, 통일성, 공공성에 제공된 원형적인 장소성과 최소한의 구조적 틀만을 부여한다. 람푸냐니(V.M. Lampugnani)는 이를 다원론적인 사회에 객관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축약<sup>24)</sup>으로 보고 정밀하고 세련된 금융주의적 표현형태와 섬세한 색조, 추정된 건축의 실제적 본보기로 그의 결정체적인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적 엄격주의는 의식적인 자기제한을 통해 미적 현실주의에 대한 루카치(Lukcas)의 요구를 충족 시키고자하는 강력한 지적 예술적 산물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관상의 흥미를 배제한 교묘 하리만큼 공평한 사회주의적 분배가 나타나기도 한다. 개인주의적 변덕과 흥행술 뒤에 남겨진 단순한 언어를 찾고 침묵하는 그의 건축은 극도로 약화시켜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형태요소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5) 아돌포 나탈리니(Adolfo Natalini). 이스토그라미 다르키테투라

(Istogrammi d'architettura) 1972

피렌체의 슈퍼스튜디오는 밀라노 합리주의에 직접적으로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6개의 다양한 교외 주택에서 각 집의 표면은 합리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sup>26)</sup> 우리시대의 근본적인 갈등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미학적 구성의 의지와 미학적 형태가

18)Vittorio E. Savi & J.M. Montaner. Op. cit., pp.24 25

19)간단한 입방체가 기하학적 기본형태의 효력을 표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20)히틀러나 스탈린에 의해 세워진 상징물의 모호한 이용은 공공건물에서 재 표현을 반대하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

21)Heinrich Klotz, Op.cit.,pp.118 119

22)Rossi에게 형이상학은 키리코(Giorgio de chirico)의 핏투라 메타피지카(Pittura Metafisica)를 회상케 한다.

23)Aldo Rossi, L'architettura della città. 1966. p.79

24)V.M. Lampugnani, 현대건축의 조류. 태림. 1994. pp.329 331

25)Heinrich Klotz, Op.cit.,pp.231 235

26)Heinrich Klotz.Ibid.,pp.245 248



<그림 5> 아돌포 나탈리니  
이스토크라미 다르키테투라, 1972.

공헌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욕과의 갈등이었다. 나탈리니는 흰색의 타일 하나로 소품에서 실내, 건축, 나아가 도시 및 자연을 정

의하고자 한다. 그들의 비록한 부너겨자(예: 일 모뉴멘토 콘티누오) 지구상의 모든 강력한 이성의 표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68세대의 다른 합리주의 건축가들과는 다르게 그는 이론적이고 미학적인 선지에서 힘의 논리와 각자의 모호함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광택함께의 말살된 환경에 대한 비평과보편적 합리주의의 미학에 대한 긍정적 견해 모두를 내재하고 있다. Op아트를 연상케 하는 그의 작업 이스토크라미 다르키테투라는 그 구형이 보고자 하는 자료 하여금 모든 상상가능한 추상적 형태로 개발될 수 있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원칙의 엄밀함에 반어적으로 나탈리니는 이를 무덤의 건축이라했다. 그의 이런 작업에서는 현대 미니멀리즘의 관조적이고 단순화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면서도 후기작업(예: 프랑크프르트 선사박물관)에서는 동일 수법으로 역사적인 모티브가 절제되어 추상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6) 안토니오 모네스티롤리(Antonio Monestiroli) 가리발디 계획  
(Garibaldi Repubblica). 밀라노, 1993

그를 두고 사비(V. Savi)는 "그의 건축은 결코 한번도 충족 될 만큼 성격 지어진 것이 없고 그 자체로써 존재함조차 그 성격과 일치한 적이 없으며, 어떻게 되어야 함조차 없었다."고 서술한다.<sup>7)</sup> 그의 계획은 곧 이론이고 그의 작업 속에서처럼 함축적이고 황폐하리만큼 비장적이지도 않고 단순하다. 그의 이론과 작업은 평행적인 구조를 견고하게 구축시키고 있다. 그의작업에 비하면 도시나 벤츄리 모두 시적으로 위장된 이론들이다. 79년 '현실로써의 건축'을 출판하며 그의 전략은 반복을 통해 이론이 시로 승화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모네스티롤리는 비평적이고 일반론적이며 규칙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의 설정으로 그의 이론 속에서 각각의 것이자 전체의 것이기도 한 것이다. 도시 디자인에 대한 그의 관점에서 그 목표는 유형학적 으로 코드화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각 부분이나 전체로 주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다. 밀라노 가리발디 광장의 축을 위한 계획은 도시의 외곽에서 도시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도시적 원근법의 정점을

확인하는 계획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공화된 버려진 땅에 세워진다. 이는 도시공공시설의 탁월한 경계영역으로 인식된다. 미스식 기초와 힐베르자이머의 입면 장식관 그리고 집단적 성격을

조절하는 대리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축 자체이고 강하게 통일된 복합체이며 대 도시적 혼합물로 구성되어있는 한 부분에서 전통적 도시 발달의 경계화를 사려깊게 되돌려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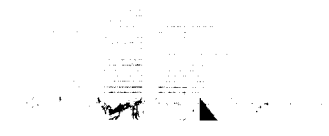
## 5. 합리주의 건축과 미니멀리즘 건축 비교

### 5.1 유사성과 차이점

현대 미니멀리즘과 이탈리아 신 합리주의자들의 유사성으로는 1. 자기 참조적 형태와 개념적 차원의 조합을 통한 단순성 2. 만들어지는 수단에 대한 환원적인 접근 3. 시대적 재료의 속성에 대한 비판적 관심 4. 대지에 대한 분별력 5. 동시대 기술력에 대한 포용력. 등으로 이는 대지, 프로그램, 재료의 조합을 통해 건축물에 잠재된 질적인 것을 탐구하며 결과로써 매우 완성도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에 반해 신 합리주의에 비해 미니멀리즘의 차이점으로는 1. 역사를 거부하는 순수형태구성 원리로써의 단순성추구 2. 기억과 흔적의 상징이나 암시를 동반하지 않는 추상성을 통한 자기참조 3. 반복적 형태를 도시를 배제하고 건축의 개념적 차원으로만 조합 4. 기술에서 건물이 구성되는 수단에 대한 즉각적인 환원과 접근 5. 재료에 대한 즉물적인 관심 6. 공간 및 장소로 건축의 영역 개념에서 대지에 대한 인식이 자연대 비자연의 차이성 대립에 의한 분별 7. 형상적인 문맥 참조보다는 부지의 정체성을 찾아 건축에 도구적으로 사용할 등이다. 신 합리주의는 중세적 신비주의와는 대조되는 인간학이다. 거장의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작업의 의미로 건설자의 장인적 전통과 대화를 유지하며 재료와 그 조합수단에 대한 관심을 공동체적 관습과 연관지음으로써 건축의 개념과 건설이 건축을 지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단순화, 추상화, 개념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무한한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의 틀로써 작용한다. 현대건축은 상징과 의미의 과잉 혹은 인식 없이 제거함에만 집중적인 목적을 통해 건축의 고전적 원칙과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양식적 명료함, 비판적 목적, 지속의 문제와 지탱해줄 안정된 사회가 없고 건축에서는 일상적이지 못한 초현대재료를 사용하거나 개발 혁신된 디테일만을 요구하게된다. 현대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은 과학적 지식에서 벗어나 합리주의의 지적 객관성에 반대하는 감각적 상대주의를 말하고 있다.

### 5.2 이탈리아 현대건축이 갖는 의미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의 사물이란 과거에 생각했듯이 물질적이고 실사적인 가치를 가진 실존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 유형에 따른 유희적인 기호와 같다고 주장하여 사회의 모든 사실과 사물을 실상이 없는 허상인 것으로 보았다. 사물의 기호화라는 그의 이론은 일관되게 지속되어 궁극적으로는 실재가 완전히 기호에 의해 대체된 시뮬라시옹 사회의 분석에까지 이른다. 즉 오늘의 우리사회는 기호가 실재를 더욱더 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어 실재란 없으며



<그림 6> 안토니오 모네스티롤리  
가리발디 계획, 밀라노 1993.

7) Vittorio E. Savi & Josep M. Montaner. Op. cit., p.84

실제의 환각만을 제공하는 시뮬라크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기호화된 양식보다는 과거 및 흔적 돌아보기에 중심점을 두고 역사성에 기반을 둔 신험리주의는 현대의 과도하게 변모하는 도시변환의 모습에서 본질적인 자기 모습 찾기의 실존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현대의 과잉에 대한 무감각증을 벗어나 절제의 가치와 만들어 내지 않고 담겨지는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건축이라는 매개체에 담으려는 것은 건축이 도시 속에서 표현하려는 자의적 주장보다는 배경 막으로써의 역할 회복에 목표를 두고있음이다.

## 6. 결론

새로운 자율성의 추구라는 건축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다. 특히 1960년대를 중심으로 신험리주의 라는 이탈리아 건축가들의 작업과 현대의 미니멀리즘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건축작품으로부터 우리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전통언어의 절제된 사용과 유형학적인 원형을 바탕으로 접근하려는 이탈리아 신험리주의 건축가들의 작업은 건축에 필수적인 구성적, 조합적 법칙, 즉 정신의 극도로 절제된 표현에 이르게 되는 수단인 내재적 논리성을 추구하였으며, 인간공학적 논리를 거부하고 기억 속에 존재하는 건축요소의 추상화를 통해 침묵의 단순한 원형적인 형태, 즉 강한 구속력과 공동체적인 객관적 언어를 추구한다.<sup>28)</sup> 여기서 가능한 형태의 세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과거의 무한한 연결을 진행시킨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고 형태의 세계는 과거의 배경에 대응해 그 자체를 드러내며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모방의 상태에서만 실체화된다. 이것은 향수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극복하고 사유함으로써 이해되는 것이다.<sup>29)</sup> 형태로부터 극복과 사유의 방법론은 현대의 미니멀리즘에서도 공통된 유형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미니멀리즘은 과거로부터의 유추적 해석과 유형학적인 원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거부를 표방한다.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와 극단적 절제와 본성적, 감성적 순수주의에서는 추상성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거부하는 전위적인 해석과 객체가 지니고 있는 반 아나로그적 풍부성과 다양성에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절제된 표현도 요소의 강조, 의미, 그리고 은유나 기억의 방법론이 역사를 중심으로 출발함에 반대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Richard Appignanesi, postmodernism, Readers, 1995.
2. Kenneth Baker, 미니멀리즘, 열화당, 1993
3. Ignasio de Sola Morales Rubo, Thepresence of Mies, Delft Mertin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Y. 1994
4. 이정옥, 현대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13호, 1997.12
5. Vittorio E. Savi & J.M. Montaner, Less is More, Ingoprint, S.A. Barcelona,1996

6. M.Merleau-Ponty,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역, 서광사, 1983
7. Heinrich Klotz, 현대건축론, 기문당, 1991
8. 김종현, 1930년대 이탈리아 합리주의건축의 모던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105호, 1997.7
9. V.M. Lampunagni, 현대건축의 조류, 태림, 1994
10.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건사, 1997

〈접수 : 1998. 11. 3〉

28)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건사. pp.101-120

29)H. Klotz. 현대건축론 .1984. 기문당. p.233